# 연세대학교

제45대 총학생회 연세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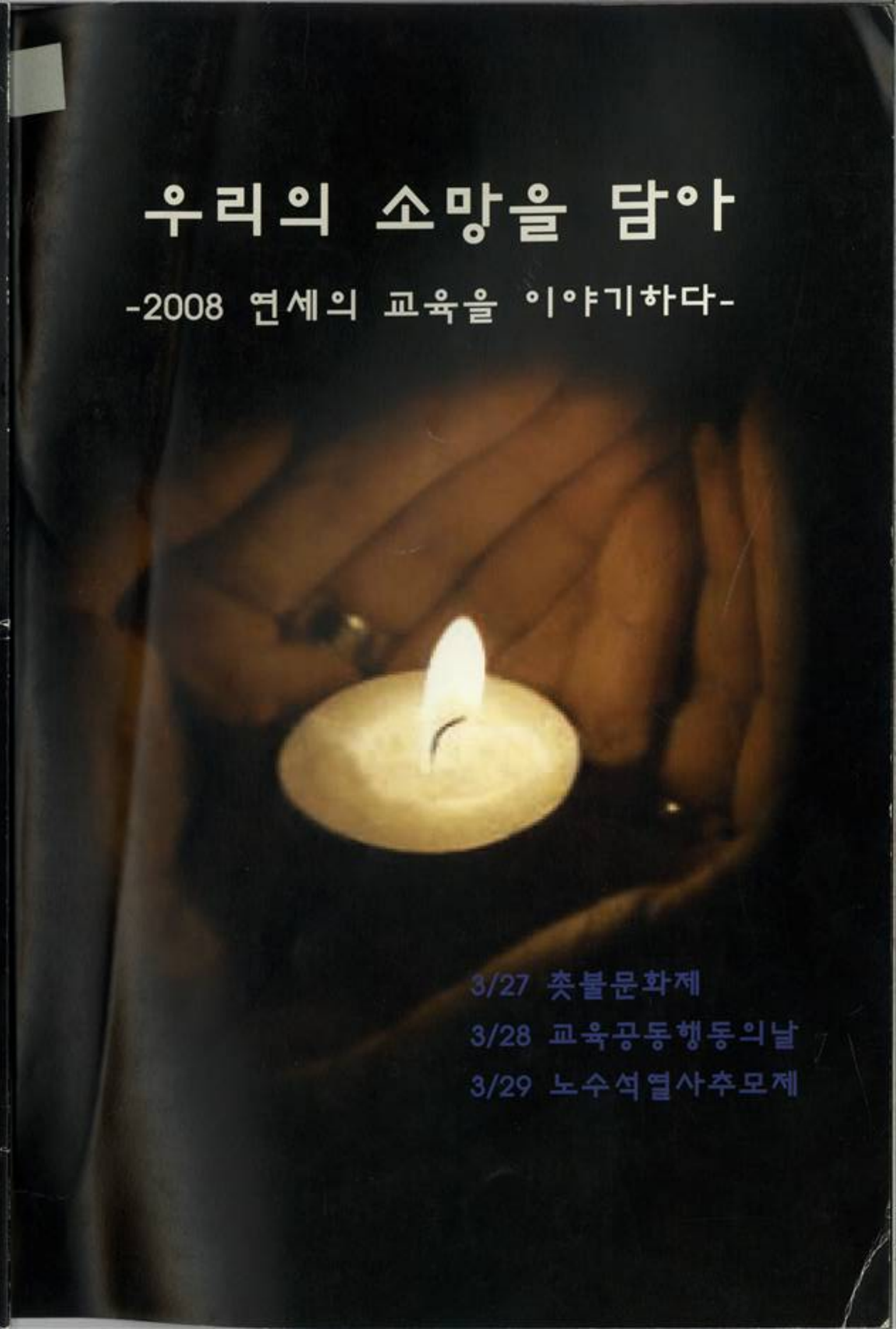
www.yonsei365.com

제45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club.cyworld.com/ys2008

# 우리의 소망을 담아

-2008 연세의 교육을 이야기하다-



3/27 촛불문화제

3/28 교육공동행동의날

3/29 노수석열사추모제

# 우리의 소망을 담아

## -2008 연세의 교육을 이야기하다-

3/27 촛불문화제

3/28 교육공동행동의날

3/29 노수석열사추모제

# 여는 글

떠올려 봅니다.
지난겨울도 참 추웠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내어보지만,
쌀쌀한 겨울바람에 소리조차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느덧,
봄바람이 소매 안으로 부드럽게 스칩니다.
따스한 봄바람에 움츠렸던 어깨를 펴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냉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등록금은 또 다시 올랐고,
우리의 자치공간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학사제도가 변경될 뻔했고,
여학생처는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11년 전, 그때를 떠올려봅니다.
노수석 선배는 이러한 우리의 교육 문제를 외치다
이슬 속으로 사라져
우리에게 열사라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위한 외침에
'희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연한 우리의 것'을 위해서
'당연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너와 나의 이야기를 위해
너와 내가 함께 소망의 촛불을 밝혀볼까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매서운 바람이 부는 냉혹한 겨울도
우리의 촛불이 함께 한다면
조금은 견딜만할 것입니다.
아니, 조금은 더 밝고 따뜻한 봄을 불러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 눈 녹듯 비켜가고
따뜻한 봄의 향연을 피우듯
우리의 현실도 완연한 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혼자만의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 내리비치

02 여는 글
04 목차
06 인사글 (총학생회장)

08 Ⅰ.촛불문화제와 교육요구안

18 Ⅱ. 노수석열사 추모제

39 Ⅲ. 연세대학교 교육현안 분석

60 Ⅳ. 328 교육공동행동

# 인사글 _총학생회장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45번째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성치훈입니다.

08년도 새 학기,
학교생활은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연세학생사회를 발전시켜보겠다는 큰 '꿈'을 안고
총학생회일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4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학생사회의 일에 참 무심했던 제가
학생들을 대표해서 일을 하려니 참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참 즐거웠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연세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저의 '꿈'을 실현해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신나고 행복했습니다.

시험기간에 솟을샘 24시간 개방을 위해 직접 일하면서..
보다 나은 학생수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금껏 매년 외면받았던 총학생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를 밤새 고민하면서..

단 한번도
단 한순간도
이 일을 시작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을 만큼
즐거웠습니다.

**연세교육 새로고침 club.cyworld.com/f5yonsei**

2008년 연세의 교육을 말하다

하지만,
총학생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시 학자금대출을 받으며 채무자가 되어갈 학우들과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과외를 몇 개씩 해야만 하는 학우들이 있음에도
등록금책정협의위원회에 자리에서
학생대표로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책임감으로 인한 무거운 마음으로 인해
마냥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힘만으로는 제가 학생사회를 위해 이루고자 하는 '꿈'들을 모두
이루기에는 '학교'라는 벽은 너무 높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세학우로서의 여러분의 '꿈'과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학우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촛불문화제에 많이 모이면 등록금 깎아주나요?'
'우리 3,000명 모이면 강의실 의자좀 바꿔주나요?'
'우리가 모여봐야 학교가 듣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비해 너무나 힘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꿈'을 위해
'학교'라는 큰 벽 앞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혼자만의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우리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 줄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인사말 _ 총학생회장**

2008년

연세대학교 학생사회의

비상을 꿈꾸며..

제45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연세교육 새로고침 club.cyworld.com/f5yonsei

2008년 연세의 교육을 말하다

# 327

# 촛불문화제

3월 27일 늦은 5시30분

백양로 삼거리

# 촛불문화제

올해도 연세대학교의 등록금은 8.9%인상되었습니다. 매년 그래왔듯이 학내에는 여기저기에 등록금인상을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어있고, 건물에도 플랜카드가 걸려있습니다. 이제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대화의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는 "학교 발전을 위하여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학내 분위기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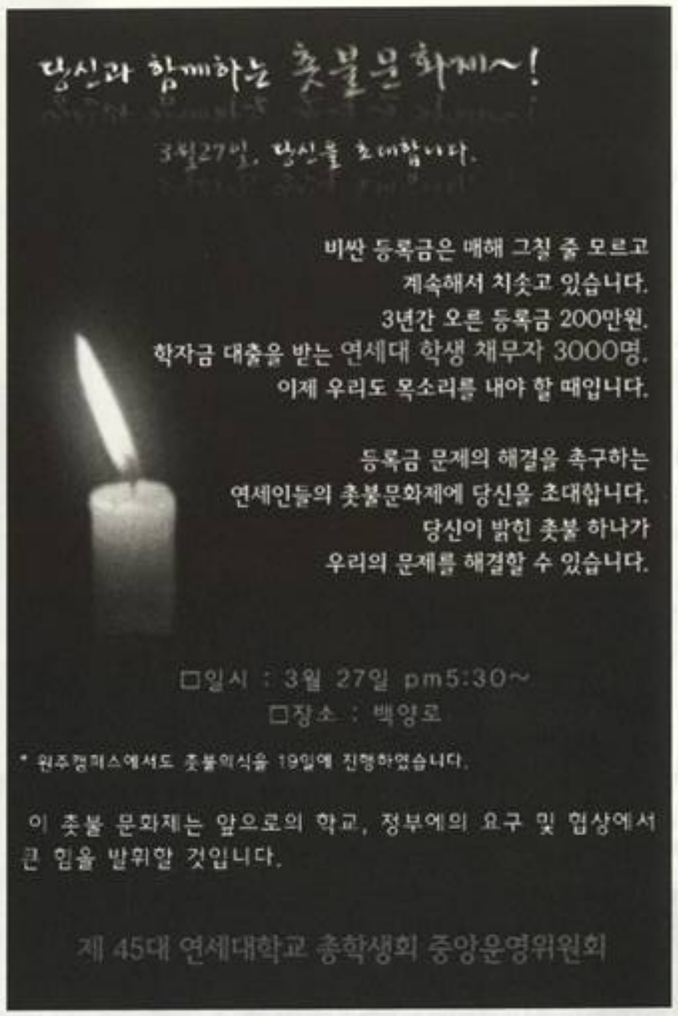
하지만 이렇게 매년 오르는 등록금에 비해서, 우리 연세대학교의 학생들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배울 수 있는 학문의 전당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은 학생이 주체가 아닌 교수·교직원이 중심인 연구기관화 되어있고, 학생들은 그 안에서 소비자로서 교육을 받는 피동적인 객체로 머물러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등록금 문제, 학사제도 등을 포함한 교육 문제 등에 있어서 학생들은 주체가 되지 못한 채 수동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사안을 통보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비롯한 12가지 교육 요구안을 해결하기 위해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 대표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생들의 목소리입니다. 교육 요구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함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목소리 내는 우리들의 집회가 되게 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참여할 수 있는 촛불문화제를 통해 학생들은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지속적인 학생사회의 목소리의 수렴 또한 가능케 할 것입니다.

## 연세인 여러분!

3월 27일 해가질 무렵의 백양로를 밝혀주십시오. 타지 않는 촛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촛불은 타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타야지만 의미가 있고 자기의 존재가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자기를 녹여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같이 어두운 교육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개진해봅시다. 연세인 여러분의 소망은 2008년 등록금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요구안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앞에서 있었던 촛불문화제>




## Ⅰ. 백양로 길거리 행사 : 정오12시~

◇장소 : 백양로 곳곳

8.9%를 깨라! - 기왓장 깨기 (정오12:00~)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 이대로 참을 수 없다! - 물 풍선 터뜨리기 (정오12:00~)

OX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연세의 교육문제 - OX 퀴즈 대전 (낮1:00~)

## Ⅱ. 촛불의식 : 늦은 5시30분~ 7시

◇장소 : 백양로 삼거리





## 우리는 요구합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 학기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문제는 작년과, 아니 10여 년 전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등록금은 매해 높은 인상률로 치솟고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의 희생자가 되고 있지만, 우리의 교육 권리, 교육 환경은 별달리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소리 내어 봅니다. 2008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교육 요구안을 하나 둘 수렴하여 학교에, 총장님께 간절하게, 소리 내어 요구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교육 요구안은 그저 요구안이 아닌 우리의 청사진이자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함께 소망하고, 목소리 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겠지요.

### 2008 교육요구안

하나. 매년 치솟고 있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

하나. 모든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총장 직선제를 보장하라.

하나. 수학배치고사와 영어진단검사를 개선하라.

하나.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참여 1/3 보장하라.

하나. 교육환경을 개선하라.

하나. 학사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자치공간을 확충하라.

하나. 강의평가를 개선하라.

하나. 로즈콜 법안을 개혁하라.

하나. 학생을 학교의 주체로 인정하고, 학생들과 관련된 학사제도의 변경 시 학생들과 협의하도록 하라.

하나. 여학생처를 독립기구로 유지하라.

하나. 편입학과정을 투명화하라.

우리의 교육 요구안은 제 45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수렴·의결되고, 학대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 하나. 매년 치솟고 있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연 등록금 천만원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사립대학교들은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고, 사립대의 특성상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매년 등록금을 무리하게 올리고 있다. 등록금은 매년 물가 인상률 이상으로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고, 이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의 재정확충을 주장하고 있는 학교의 논리에 따라 등록금이 올라가면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인재'들은 자기계발과 학문에 열중하기 보다는 과외를 하거나 빨리 졸업해서 학교를 떠나야겠다는 생각만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45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방해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

## 하나. 모든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총장 직선제를 보장하라.

45대 학생회는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최소한의 학생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의 위원 전체 34인 중 학생은 2인밖에 배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총추위 외에는 실질적으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학생 참여가 불가하다. 또한 교수평의회와 총추위를 거쳐 후보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현 구조는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따라서 장기적인 미래에는 직선제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총학생회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하나. 수학배치고사와 영어진단검사의 활용개선

배치고사를 통해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분반하고, 불공정한 성적평가를 내도록 하는 현 행정에 반대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이미 몇몇 배치고사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또한 모든 배치고사 형태의 시험을 막기 어렵다. 그리고 이를 막음으로써 학생들에게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학생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치러진 시험이 학생들에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테스트를 통해 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 반을 결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이전과 같은 불공정한 성적 평가 대신 공정한 성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 하나.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참여 1/3 보장하라.

학생이 1/3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중요한 주체인 학생이 학교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교 간의 마찰을 줄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학평의원회에 학생 대표로 배정된 2명은 실질적으로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것이 총학생회의 입장이다. 최소 서울캠퍼스 학부생 대표, 원주캠퍼스 학부생 대표, 대학원생 대표가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생 대표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에 반드시 학생 대표가 3인 이상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 하나. 교육환경을 개선하라.

대학은 학문과 배움의 전당으로서 학생들은 대학에

서 참된 배움을 받고, 공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좁은 강의실에서 대형 강의를 수강하는 등 일방적으로 진정한 배움과 학습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고,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한다.

## 하나. 학사제도의 개선

현 학사제도 안에서 학생들은 끊임없는 학점 경쟁으로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마음껏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학점을 위한 수강이 아니라, 배움과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한다.

## 하나. 자치공간을 확충하라.

현재 각 단과대학 별로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있는 자치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예정 건물의 공간조차도 학생들의 자치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생자치공간의 확대와 아울러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의 학생자치공간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간위원회에 학생들도 참여하여 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한다.

## 하나. 강의평가를 개선하라.

현재 강의평가 제도는 평가의 항목들이 학생들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단지 학교를 위한 평가목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진정한 강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강의를 선택하는데 강의평가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강의평가의 항목의 개정과 함께 결과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





## 하나. 로스쿨 법안을 개혁하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로스쿨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로스쿨 법이 시행되는 과정,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러한 국가적인 법안을 학교에 요구하는 이유는 현재 법안을 보면 시행령이 대부분 학교에 맡겨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기존의 학부생을 보호해줄 것을 학교가 보장하고 로스쿨유치를 위해서 등록금 인상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반대한다.

## 하나. 학생을 학교의 주체로 인정하고, 학생들과 관련된 학사제도의 변경시 학생들과 협의하도록 하라.

지금까지 매년 크고 작게 학사제도들이 변경되어왔고 그 과정에 있어서 학사제도에 따르는 주체인 학생들은 항상 변경된 학사제도를 통보만 받아왔다. 그렇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학사제도의 변경이었기에 학생들의 반발도 심하고 실제로 그 학사제도의 변경이 학생들에게 꼭 맞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있을 학사제도의 변경에 있어서는 항상 그 주체가 학생임을 인정하고 학생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변경안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 하나. 여학생처를 독립기구로 유지하라.

최근 학교의 조직개편에 따라 8월에 여학생처가 학생처로 통폐합된다고 한다. 여학생처에서는 여학생 멘토-멘티제도등 여학생 처만의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직개편, 부서축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독립적 기능을 유지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여학생처를 독립기구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 하나. 편입학과정을 투명화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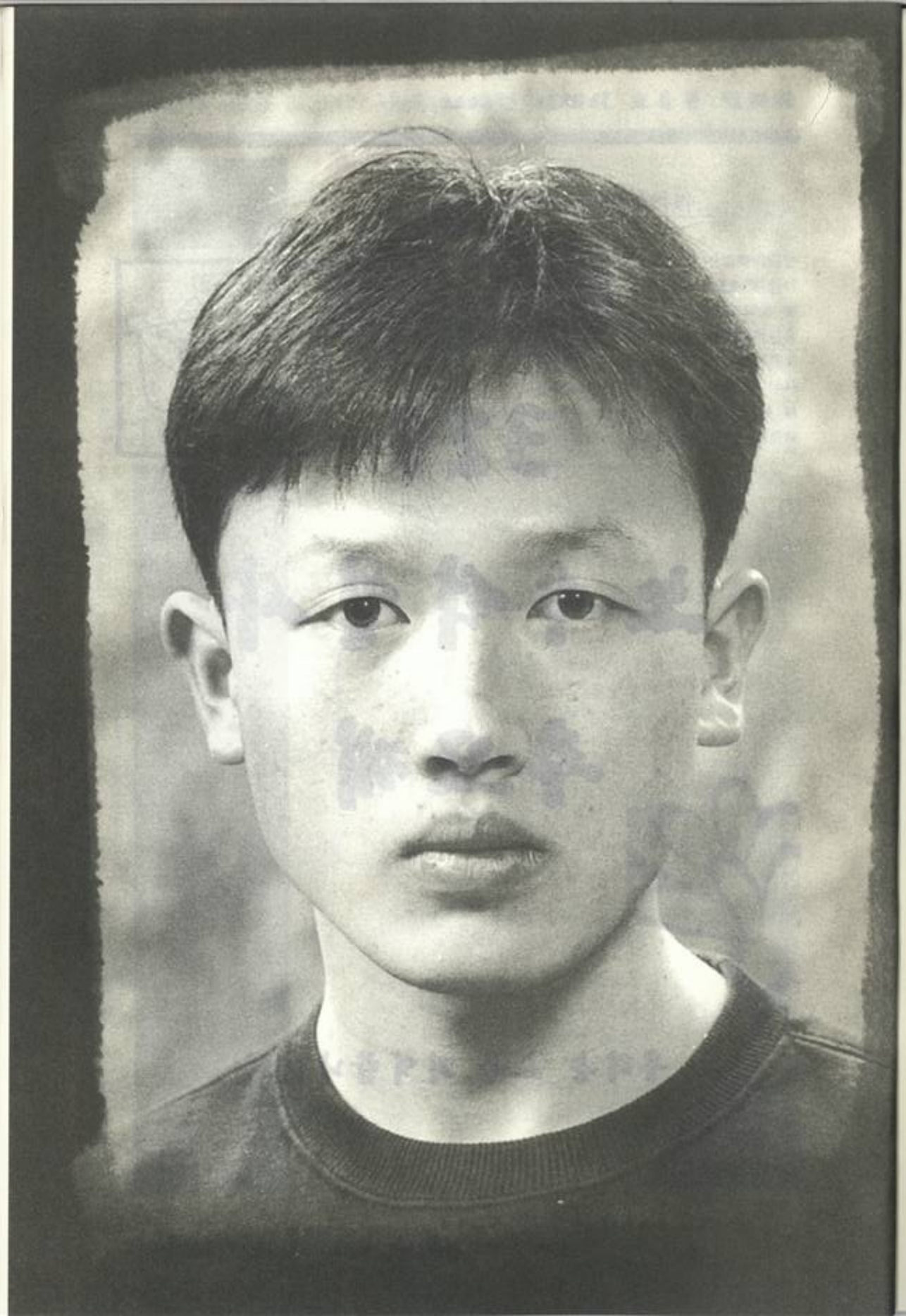
작년부터 의혹이 불거져나온 우리대학교의 편입학비리는 수년전부터 공공연하게 떠돌던 얘기들이었다. 실제로 편입학 학원들에서도 연세대학교의 편입학과정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고 평가기준을 알 수 없어서 어떤식으로 편입학시험을 준비해야할이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이러한 편입학의혹으로 생긴 연세의 이미지 실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 중 하나가 바로 학생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의혹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편입학 과정과 평가기준을 뚜렷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

# Ⅱ

# 329

# 노수석열사 추모제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 노수석열사

1976년 11월 23일 광주 출생

1989년 2월 광주 장원초등학교 졸업

1992년 2월 조선대학교 부속 중학교 졸업

1995년 3월 광주 대동고등학교 졸업

1995년 3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입학
법대 풍물패 천둥 활동

1996년 3월 29일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서총련 결의대회' 중 경찰의 폭력 진압에 의해 운명

1999년 2월 95학번 동기들과 함께 명예 졸업장을 수여받음

2003년 9월 9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 인사글 _법대학생회장

마치 거짓말처럼 방학 때의 고요함을 떠나보내고, 광복관 로비에서 많은 새내기들과 법현인들이 마주하는 역동적인 3월입니다. 2008년 새학기의 풋풋함과 동시에 겨울의 기나긴 잠을 깨어 백양로에는 봄꽃이 활짝 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세의 봄날은 멀어보이기만 합니다. 3월의 봄을 맞이하려 하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춥게 만드는 현실들. 12년 전에도 우리의 선배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 애쓰다 돌아가셨습니다.

노수석 선배를 우리 곁에서 떠나보낸 지 벌써 12년입니다. 매년 계속해서 교육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선배가 그렇게 외쳤던 구호를 되새겨보지만, 그럴 때마다 12년 전과 지금이 전혀 바뀐 것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열사가 외쳤던 구호가, 열사가 염원하던 변화가 아직까지도 소원하기만 하고, 오히려 더 각박해져만 가는 현실에서 열사의 염원이 우리의 그것과 다르지 않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열사를 기억합니다.

"교육재정확보, 대선자금 공개, 등록금문제 해결" 1996년 3월, 현실의 문제를 뜨겁게 느끼시고, 외치시며 거리로 나가셨지만 선배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죽음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한 선배의 앞에서 우리는 선배의 죽음의 이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학교는 자신들의 입으로 스스로 말했습니다. "등록금 낼 돈 없어 불만이면, 다른 학교 가서 장학금 받고 다니면 되지, 왜 연세대학교 왔느냐"고. 어떠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8.9%라는 인상률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우리의 교육환경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올해는 심지어, 학점을 편하게 주고 편하게 가르치기 위해, 경쟁을 심화시키고 학업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려버리는 말뿐인 진단평가를 새내기들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마음대로 바뀌는 학사제도들, 우리의 더욱 각박해져만 가는 현실에서 다시 한 번 열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사람의 죽음으로도 세상은 변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말하고자 했던 것들, 선배가 느꼈던 것들을, 그 뜻을 이제는 우리가 이어갈 차례입니다. 열사를 추모한다는 것은 열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열사의 뜻을 되새기고 꼭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배를 우리의 곁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 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선배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행동들을 보여줄 때입니다.

**38대 법과대학 학생회장 김상현**

# 인사글 _졸업생

"역사는 강이 되어 흐르고, 너는 먼저 강이 되었으니"
노수석 열사 제 12주기에 즈음하여..

연세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내기들의 싱그러움으로 겨우내 우중충하던 연세 교정 곳곳에 생기와 낭만이 넘쳐나리라고 옛기억을 더듬어 예상해봅니다. 12년 전의 봄도 그러하였습니다. 12년 전 그때도 요즘처럼 훈훈한 봄바람이 불었고 왠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따뜻하고 화창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때의 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연세 교정 한켠에 노수석 열사의 추모비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회관 옆 한열동산 한쪽에 조용히, 하지만 보기좋게 자리잡고 있는 5개의 고리모양의 조형물을 보셨나요? 여느 예술가의 작품처럼 생겨서 이미 보았음에도 '예술작품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스쳐지나간 분들도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그 돌무더기 한켠에는 "노수석은 1976년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 1995년 법관의 꿈을 품고..."라고 시작되는 글이 새겨져 있는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 머릿돌에 새겨진 글을 읽어보신 연세인이라면 '아, 예전에 연세대학교에 이러한 일을 겪은 선배가 있었구나' 하고 한번쯤 생각해보셨겠지요.







하나 더, 학생회관 2층 올라가는 계단 중간쯤에 있는 노수석 열사 영정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한열 열사 옆자리에 잘생긴 얼굴을 하고서 그곳을 지나는 연세인을 쳐다보는 맑은 눈빛을 가진 노수석 열사의 사진을 보셨다면, '참 잘생겼는데 어쩌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을까..'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노수석 열사는 연세교정 곳곳에서 연세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느 연세인들처럼 쾌활하고 발랄하였으나, 사회적 불평등과 폭력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로운 청년이었던 노수석 열사는 1996년 봄 김영삼 정권의 대선자금 공개와 국가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의 폭력진압에 산화해갔습니다.

이렇게 우리곁을 떠나갔던 노수석 열사의 12주기가 어느덧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열사를 기억하려 하고 추모제를 열어가면서 연세인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열사의 죽음이 갖는 현재성 때문입니다. 사회적 폭력으로 열사를 만들어내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함을 드러냅니다. 노수석 열사가 산화해간지 12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하여 열사의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였음을 말해줍니다.

노수석 열사의 12주기 추모제는 열사의 희생을 추모하는 동시에, 민감한 시선으로 사회적 폭력과 불평등을 직시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예년처럼 하늘도 함께 슬퍼하여 비가 내리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눈부시게 맑고 따뜻하고 싱그러운 봄날을 연세인들과 함께 즐기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노수석 열사 추모사업회 회장 법대 93 강길용**

# 노수석 열사, 그 죽음의 이유

## 01

### 95년 말부터

노수석 열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1996년 3월 29일 집회의 요구사항은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확보'였다. 어떻게 이 두 요구사안이 96년 봄, 전체 학생운동 진영의 핵심 투쟁 사안이 되었는지 정리해본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_**

당시 5·18 책임자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고 있었고, 이에 검찰에서 고발인 '공소권 없음' 결정이 발표되자 온 국민의 분노가 촉발되었다. 학생·노동·농민·여성·재야법조·종교계 등의 단체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5·18 범국민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10월 19일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4천억설을 제기하는데, 이 문제가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후임 노태우 대통령에게 수천억원대의 선거자금을 지원하고 이월 통치금을 전달한 것이 공개되면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 노태우와의 커넥션과 대선자금 내역을 밝히도록 하는 요구가 높아졌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 김영삼 대통령 측은 스스로 대선자금을 공개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24일 '5·18 특별법 연대 제정 결정'을 발표한다. 이는 학살 책임자의 사법처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주화 투쟁의 승리였다. 그러나 실상 김영삼 정권은 자신들의 정통성과 도덕성에 막대

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대선자금 문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미봉책으로 이를 발표한 것이다.

결국 12월 5일 노태우 전 대통령 부정축재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검찰 측은 노태우의 전체 비자금 조성 규모가 4,189억원이나, 이 비자금이 대선 지원금으로 유입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자금에 대한 의혹이 계속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집권당과 대통령 스스로 이를 밝힐 의지 없음이 드러나자 대대적 집회와 시위를 통한 범국민적 저항이 이듬해 봄까지 지속되었다.

**교육재정확보_**

몇 년 동안 계속된 등록금 분규는 특정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률은 연평균 15%를 기록하며 6년 만에 두 배 이상 인상되었다. 이는 대학재정 자립도의 열악함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국가와 교육부밖에 없었다. 1992년 각 대선 후보들은 '교육재정 5% 확보'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1996년 겨울, 전국 대부분의 대학 등록금이 대거 인상되며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 담합의혹'이 함께 재기된다. 96년 1월 20일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94년부터 96년까지 연세, 고려, 서강, 한양, 이화 등 주요 사립대학의 신입생 입학금 인상률이 3년간 똑같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학생운동진영은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정부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그리하여 당시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며 함께 외쳤던 구호는 '교육재정 5% 확보 공약 이행', '국가교육재정 확충', '불법 대선자금 환수를 통한 교육재정 충당'이었다.

02

1996년





**3월 전**

연세대학교는 "연세우유 파동으로 재단의 재정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상황에서, 대학원 중점 대학 설립 대응자금과 소급 퇴직금 지급에 따른 지출액은 재단전입금 만으로 부담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재학생 평균 16.38%의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등록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

**총학생회의 대응**

총학생회는 여타 사립대학과 합동 기자회견을 갖는 등 등록금 인상반대와 정부의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하며, 대학 등록금 인상 담합 의혹제기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3월 2일**

총학생회는 개강과 동시에 등록금 인상 저지 투쟁을 시작한다.

**3월 5일**

총학생회는 비상확운위를 통해 등록금 인상률을 6.7%로 조정할 것을 골자로 하는 요구안을 학교 측에 전달하였다. 또한 정기확운위가 예정된 12일까지 등록금 납부를 연기하기로 한다.

**3월 13일**

확운위 보고대회에서 총학생회 집행부 3인의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고, 보고대회가 끝난 후 본관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3월 21일, 26일**

중운위원 12명이 삭발식을 진행한다. 연세대 단과대 학생회장과 학과 대표 등 확운위원들과 신입생 등 100여명은 26일 학교 측이 제시한 14.89% 등록금 인상안에 항의, 민주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3월 28일

학교측과 총학생회간의 '면담'이 진행되는 중에 학교 당국이 13.66%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총학생회는 이에 항의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민주납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03

## 1996년 3월 29일, 한 대학생이 세상을 뜨기까지.

**1500여명의 학생들이 함께한 '연세인 결의대회'**

연세대 학생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등록금 동결과 교육재정 확보, 대선자금 공개를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가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학생들은 집회 뒤 본관건물을 항의 방문하여 모든 집기를 들어내며 강력하게 항의한다.

**경찰의 '토끼몰이 진압작전'이 펼쳐진 종묘**

학생들은 본관 앞 항의집회를 마친 뒤 '김영삼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종묘공원으로 이동했다. 학교별로 사전집회를 마친 서울지역대학생들은 5시 반쯤 종로2가 종묘공원 일대에 집결해 "김영삼의 대선자금 공개하라", "교육재정 확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곧바로 다연발 최루탄을 난사하며 1차 진압을 시도했다. 이로 인해 전체 대오가 을지로 방향으로 밀려난다. 이 과정에서 1/3 정도의 학생들이 흩어졌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검거된다. 경찰에 쫓긴 학생들이 을지로 5가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을 때 잠복 중이던 가동타격대(백골단)과 전투경찰이 시위 대열을 다시 급습했다. 이 때문에 학생 대부분이 골목으로 흩어졌으며, 극소수만이 동국대 교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경찰은 56개 중대 6천여명이 출동해 '토끼몰이 진압작전'을 구





사했으며 지도부는 직접 CCTV를 통해 학생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파악해 진압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묘에서 전체 대열이 해산되어 쫓기는 상화이었음에도 백골단은 과잉진압을 서슴지 않았고, 이에 놀란

학생들은 당시 퇴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골목길로 흩어진다. 그러나 백골단과 전경들은 대오를 잃고 을지로 골목길로 쫓겨 가게에 숨어있거나 골목에서 지쳐 쉬고 있던 학생들을 폭행한 뒤 연행하는 등 잔인하게 진압했다.

**노수석 열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_**

노수석 열사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을지로 일대로 쫓겨 갔다. 그 과정에서 법학과 깃발을 들고 뛰던 남기돈(연세대 법학과 1학년)에게 "아까 맞았어, 아까 맞았어"라고 2~3차례 말했다. 을지로6가 입구 지점에서는 임이택(연세대 법학과 1학년)에게 "나 쥐났어"라고 해 노수석 열사를 부축해 대열을 따라갔다.

그러던 중 을지로6가에 오장동 로타리로 가는 길목에서 노수석 열사가 "더 이상 못가겠다. 가게 같은데 들어가자"고 하여 인쇄소 골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경찰의 기습공격을 받았다. 임이택은 천지호텔 앞 주차장 입구에서 연행된다.

열사는 골목 안의 대현문화사에서 발견됐다. 먼저 대현문화사에 뛰어 들어간 김건극(한양대 3학년)과 심은선(한양대 1학년)이 인쇄기 뒤편에 숨고, 이어 노수석 열사가 들어갔다. 뒤이어 정의진(한양대 경영 2학년)과 차동호(한양대 경영1학년)가 따라 들어온다.

밖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나 김건극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노수석 열사 옆을 지나다 다리를 건드렸고 이때 열사는 '아악'하는 비명을 질렀다. 전경에게 쫓겨 대현문화사로 들어가려던 하민성(연세대 사회 2학년)이 전경에게 붙잡혔고, 인쇄소 주인 최종두씨가 항의하며 전경을 인쇄소 밖으로 밀어냈다. 상황이 잠시 잠잠해지자 인쇄소 학생들은 노수석 열사의 상태가 이상함을 발견하고 열사의 몸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전경들이 다시 들어와 학생들을 연행하기 시작

했다. 연행과정에서 심은선이 노수석 열사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묵살당한다. 학생들이 모두 끌려간 뒤 인쇄소 여주인 조미선씨가 기계 뒤편의 노수석 열사를 발견하고 밖으로 나가 간부급으로 보이는 경찰에게 구호를 요청했으나 또다시 묵살당한다. 결국 조민선씨가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학생 김보선(고려대 경영 2학년) 등 2명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학생들과 주민들이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최종두씨가 119에 신고하여 오후 6시 47분 구급차가 도착해 노수석 열사를 국립의료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조덕연 국립의료원장은 "6시 55분 도착 직후 초진 결과 동공이 확대되고 호흡 및 심장박동이 멈춰있었다"면서 "오후 7시 35분까지 심장마사지와 전기 충격술 등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사망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 열사의 시신이 '국립의료원'에서 모셔짐_

다시 명동성당으로 집결한 학생들에게 노수석 열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학생들은 열사의 시신이 안치된 '국립의료원'에 속속 모여들었다. 학생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곧바로 임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인 규명과 증인 호가보 등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 측과 대책위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체 검안 작업이 진행된다. 신체 여러 곳에서 상처가 발견되었으나 직접적 사인으로 단정지을만한 외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과 대책위 양측은 "확실하고 공정한 부검 때까지 명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

오후 11시쯤 대책위 대변인을 맡은 이덕우 변호사와 국립의료원 황정연 응급실장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덕우 변호사는 "가슴에 가로5cm, 세로5cm, 두께 0.5cm의 멍과 명치 위에 가로0.5cm, 세로 2cm의 멍이 있으며 오른쪽 손가락 4개와 왼쪽 무릎에 넘어질 때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찰과상이 있다"고 밝혔다.

범대 학생 일부가 병원 안으로 들어간 뒤 병원은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됐다. 대학생 100여명이 경찰의 시신탈취에 대비하여 철야농성을 결의한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시신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학교 당국에 연락을 취했다. 뒤늦게 김석득 부총장이 병원을 찾았으나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했고 송자 총장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04

### 남겨진 사람들의 싸움

**3월 30일**

연세대 내 곳곳에 노수석 열사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되었고, 한총련과 학교 당국, 정계인사 등 각계각층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송자 총장을 비롯한 교수교직원들이 2시 30분 경 열사의 시신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의료원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송자 총장 앞에 무릎을 꿇고 "시신을 세브란스로 옮기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총장, 부총학생회장, 경찰, 유족대표 등은 2시간 여 동안 회의를 열고 시신을 옮길 것과 빠른 시일 안에 부검을 실시할 것 등을 합의했다. 결국 열사의 시신은 세브란스 병원에 안치되고 연세대 학생들은 곧바로 영안실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3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서 부검이 실시되었다. 부검결과, 부검의들은 외상이 있으나 직접 사인으로 보이지 않고 심장이 비대 확장된 것으로 보아 심근증이나 심근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미뤄 직접 사인을 내인성 급성 심장마비로 추정했다. 그러나 부검 참관인 양길승 박사는 "노 군과 같이 평소 건강하던 청년이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심장 이상 증세만으로 사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시위 진압 과정에서 가해진 외부적 충격이 심장에 영향을 주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4월 2일**

노수석 열사 아버님께서 장례식을 4일에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다. 연세대 총학생회 중운위원들이 법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만이라도 장례식을 연기해달라고 간곡이 부탁드렸지만 아버님께서는 결구 4일로 결정을 내리셨다.

**4월 3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집회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신촌로터리에서 1시간 반 동안 노상집회를 가진 뒤 청와대 항의방문을 위해 가두시위를 벌이며 시내로 진출했다. 경찰 진압을 피해 선전전을 벌이며 시내를 행진하던 학생들은 저녁 8시 30분쯤 최루탄을 쏘며 길목을 막고 있던 경찰과 대치,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4월 4일**

이대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안타까움 속에 발인 예배가 오전 7시에 열렸다. 장례행렬은 학교로 들어와 노수석 열사가 생전에 활동했던 풍물패 '천둥' 방에서 잠시 머물렀다. 본관 앞에서 진행된 영결식이 끝난 뒤 장례행렬이 교문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을 무렵 연세대 법대 학생 300여명이 교문 앞으로 달려가 대열을 막아섰다. 그들은 "이대로 수석이를 묻을 수 없습니다. 아버님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 어째서 송자 총장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장례식 고문으로 나설 수 있습니까"라며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장례를 멈추어 줄 것을 부탁드렸다. 학생 1,000여명이 이에 동참하여 장례식 연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의 침묵시위를 계속했다.

결국 이날 오후 송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군의 죽음과 관련해 학교 측에 도의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등록금 고지서가 일방적으로 발송된 것은 당시 최고 책임자로서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앞으로 노군 사망에 관련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생들과 시민들은 정확한 담변을 요구하며 학교측의 책임있는 사후 대책 발표와 정부당국 최고 책임자의 공개사과, 시위 진압 관련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질 때까지 장례식을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시위진압 관련자를 서울지검에 고소한다.

**4월 9일**

열사의 시신이 백양로에 멈추어 있지만 학교측은 열사의 죽음에 책임을 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총학측은 본관을 점거하고 학교측과 협상을 벌였다. 학교 측은 '등록금 문제 및 고지서 발부 과정에 대해 사과를 표하고 등록금 문제를 다시 협의할 것과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항의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을 약속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발표했다.

**4월 10일**

"장례를 더 이상 연기하기는 힘들다"는 유가족의 뜻을 받아들여 노수석 열사의 장례식이 학생장으로 치러졌다. 오전 10시 장례식을 시작했으며 신촌로터리에서 노제와 '부활굿'을 진행한 뒤 운구를 앞세워 가두행진을 시작했다. 장례행렬은 2시쯤 종묘공원 앞에 도착, 2만여명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추모식이 개최됐다. 노수석 열사는 광주 망월동 5·18 묘역에서 김남주 시인의 묘지 부근인 3묘역 367번 모지에 안장됐다.

**4월 12일**

학교 당국은 당초 5대 일간지에 성명을 발표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한겨레신문에만 성명을 발표해 또다시 학생과의 약속을 어겼다. 특히 학교 당국의 성명서 여에는 8,021명의 연세대 학생들의 모금액으로 낸 광고가 실렸는데, 학생들의 광고보다 학교 당국의 광고가 더 작아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4월 13일**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종부검 결과를 인용해 사망원인을 '심근병증에 의한 급성심

장사(돌연사)'로 최정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5월 10일**

이때까지 학생측가 재야인사들의 항의 시위가 계속되었다. 10일 밤 11시 30분, 본관 총장실에서 송자 총장을 비롯한 학교당국자들과 총학생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등록금 9.9% 합의하는 등 한내 제반 사항이 합의되었다.

대선자금 공개와 등록금 인상 반대의 집회에서
수석이가 죽어갔다
수석아
다음날에야 알게 된 너의 이름을 부른다
수석이를 살려달라는 절규, 높기만 한 거리에서
네가 죽었다고 유인물 한 장 건네며
지나가는 이들의 옷깃을 하염없이 붙드는 것 밖에
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역사는 강이 되어 흐르고
엇갈린 물줄기 어느새 하나로 만나는 길목을 향해 소리 없이 흐르고
봄꽃보다 예면 스무 살의 나이로
봄꽃이 다 피어오르기도 전에 쓰러져간 너를 부른다
들것에 실려 동지들 손으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지는 너의 서신은
신문지 조각마다 인쇄되어 있는데
파르스름한 눈빛으로 검은 테 두른 너의 얼굴 이제서야 만났는데
더운 피로 맥박치는 내 손목 꼭 잡아 볼 수 없는
오늘 너를 부른다
너도 나처럼 너도 우리들처럼
설레는 가슴으로 새내기를 맞고
스무 해 살아온 세상을 향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수없는 맹세를 다지고
너를 보내는 오늘처럼 깃발 나부끼는 거리에서 어깨 걸고 노래 부르며
앞으로 걸어 나가고 있었을텐데
어느 곳에서인들 두 눈 편안히 감을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이렇게 가슴 찢는 말들을 끌어 올리지 않아도 될까
다시 한 번 피를 부르는 조국의 하늘에 찬 비가 내리고
모순의 세상에 대어나 차디차게 식어가는 너를 부른다
주저앉아 통곡하며 너의 이름을 잊지 않으리
수석아
니 먼저 봄 길을 내었으니 그 길을 따라 달려간다
뛰어 쓰러지는 걸음걸음 일으켜
오욕의 강 건너기 위해 너는 먼저 강이 되었으니
우리들 가슴에 새기신 맹세가 되었으니

노수석열사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96년 3월 27일
김영삼의 불법 대선자금 공개, 환수와
GNP대비 교육재정 5%확보 대선공약 이행을 요구하던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열사가 우리곁을 떠난 지 10년하고도 2년이 더 되었습니다.
먼저 역사의 강이 되어 우리곁을 떠난
그의 짧았던 생이 우리들의 치열한 삶으로 다시금 빛나게 부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노수석 생활도서관은 '故노수석 선배'를 기억하는 것과, 생활 속 학문과 사상의 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획 운영되는 자치단위입니다.

노수석 생활도서관은 학내 유일의 자치도서관입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도서대여, 세미나 공간대여를 진행하고 있고, 노수석 열사 추모사업으로 일 년에 한 차례씩 '노수석 논픽션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방학 때는 회원들 간에 여러가지 주제로 세미나도 진행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교육과 기초철학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생활도서관 이용 안내**

위치 : 학생회관 322호
개방시간 : (평일) 14:00-16:00
대여규정 : 1회 3권까지 (책은 1주일/만화는 3일)

http://club.cyworld.com/ylifelib
노수석 생활도서관
학생회관 322호 | 02-21230-3657

故노수석 열사를 기억합니다.

# III

# 2008년 연세대학교 교육현안분석





## Ⅰ.등록금문제

### 1. 높은 등록금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어려움

지방 출신 김효식씨(가명·25·서울 ○대 4년)는 최근 휴학계를 냈다. 같은 과 친구들은 취업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그는 과외 5개를 '뛴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5년 정년퇴직한 아버지에게 등록금을 바라기는 어렵다. 또 생활비만 해도 월 60만~70만원이다. 아무리 적게 써도 돈은 모이지 않았다. 김씨는 "마지막 학기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감안하면 6개월 안에 900만원은 벌어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 큰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학비마련을 위해 졸업을 앞두고 휴학을 한 후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든 학생들이 많이 있다.

학교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등록금을 낮추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 학자금대출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 학자금 대출은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정부보증방식으로 전환된 2005년 2학기 이후 등록금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학생 4명 중 1명 꼴로 부모의 금융신용이 `불량'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대출학생 부모의 신용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카드대금을 연체한 이른바 `신용유의자'가 26.6%였다. 양친 모두 신용이 불량한 경우는 8.8%였고 부모 중 한 명이 문제가 있는 학생은 19.5%였다.

**우리학교는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다음으로 많은 3천 351명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을 조사되었다. 대출자가 순위권에 들 정도로 많은 만큼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위해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학우가 많을 것이다.**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수준으로 결정될수록 학생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의 수준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대학과 사회가 절실히 공감할 필요가 있다.

### 2. 심의·의결기능 없는 등록금책정협의위원회, 그리고 갈등

등록금 문제로 학생사회는 매해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이는 단순히 등록금이 '높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그들 자신이 내는 등록금의 책정과정, 인상 근거, 사용 내역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날아온 등록금 고**

**지서를 받아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비롯되는바 또한 크다. 합당한 절차 안에서 동등하게 대표되지 못하는 권위주의적 의사결정구조에서는 공적 심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거리로 내몰게 한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등록금이 결정되지 못하는 기제는 학생들의 대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 열리지 않는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

등록금책정심의 위원회(아래 등책위)는 위와 같이 등록금과 관련해서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에서 출범하게 되었다. 등책위는 연세사회의 3주체인 학교·교수·학생이 모여 등록금 책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따라서 기획실 정책부실장, 기획실 예산조정부장,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교수대표 3인, 직원대표 1인, 학생대표로 총학생회 추천 3인, 원주캠퍼스 총학생회 추천 1인 및 대학원 총학생회 추천 1인이 참석한다. 이처럼 등록금에 대해 학교와 학생들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자리가 등책위이다.

지난 1996년 구성된 '등록금책정자문위원회'가 2004년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로 격상되었다. 이로 인해 등책위는 등록금 책정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2006년 교수평의회의 불참으로 인해 2006학년도 등책위가 구성되지 못한 채 학교와 학생 측의 논의만 진행되었다. 이러한 갈등을 겪으면서 **2007학년도 등책위는 등록금 책정심의위원회가 아닌 '등록금책정협의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2008년에도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실효성 없는 등록금책정협의위원회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협의위원회로의 강등은 등록금과 관련한 학내 교육에 관한 민주적 통로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등책위가 협의위원회가 됨에 따라 등록금 책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간의 힘의 균형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참가함에 있어서 학교사회 내에서 점하는 입지와 비중이 실질적으로 협의에 있어서의 발언권이나 협의 중의 태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학교는 강자의 입장에 있으며, 등책위 협상시 학교 재정사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바로잡는 학생은 감사의 권한만 가진 약자의 측면에 있기 때문에 등책위가 등록금을 협의하는 기구가 아닌, 학생의 질문을 학교가 답해주는 질의응답 기구로 변질되어 버렸다. **학생을 무시하는 태도로 기만하는 학교 측의 등책위에서의 모습은 민주적 소통 과정을 바라던 학생의 기대를 무너뜨린다.**





## 2008년 올해도 . . .

**실제로 이번 해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이루어진 등책위에서도 예상처럼 민주적인 의사소통은 전혀 볼 수 없었다.** 6차례에 걸친 등책위에서 학생대표들이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는 "돈 없는 학생은 더 낮은 대학에서 장학금 받으며 다녀라." "고대의 등록금은 따라잡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이었다. 이는 재정의 60%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구성원인 학생사회를 고려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발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성 발언을 논외로 하더라도 사실상 등책위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그에 따라 결정되는 바가 전혀 없었다. 등책위는 함께 최소한 함께 협의하는 기구도 아니었고,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달래주기 식 방패였던 것이다.**

## 앞으로는 . . .

이제 학교와 학생은 제로섬 게임을 중단하고 등책위의 협의기능을 심의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 남은 대안은 학내에 공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어 학내·외에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학교도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기 보다는 다른 의견을 존중하여 경청함으로써 권력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서 상호 이해를 하고, 나아가 보다 합당하고 공공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로의 원상복구가 등록금과 관련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학내 민주화를 만드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연세대학교의 낮은 재단 전입금

우리학교 재단이사회의 창립 이념은 「진리와 자유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를 양성하여 기독교 교의에 조화하고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한 고등교육을 실시」이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는 창립이념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 법인은 대학재정의 지원을 위하여 수익사업의 확충과 전출금을 증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학지정을 위한 재단전입금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대학교 2007년 교비회계의 수입 예산 중 재단전입금의 비율은 3.6%다. 수입예산의 규모가 타 학교에 비해 크다는 것을 고려해야겠지만, 전국 1백56개 사립대학의 평균 재단전입금 비율인 9.1%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사립대학(4년제) 2007년 연간등록금 상·하위 20개 대학 현황

| 순위 | 학교명 | 연간등록금 | 순위 | 학교명 | 연간등록금 |
|---|---|---|---|---|---|
| 1 | 대구예술대학교 | 8,150 | 1 | 중앙승가대학교 | 1,836 |
| 2 | 을지의과대학교 | 8,114 | 2 | 영산선학대학교 | 2,000 |
| 3 | 추계예술대학교 | 8,106 | 3 | 아시아대학교 | 2,694 |
| 4 | 이화여자대학교 | 7,917 | 4 | 성민대학교 | 4,100 |
| 5 | 아주대학교 | 7,822 | 5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4,260 |
| 6 | 가천의과학대학교 | 7,735 | 6 | 수원가톨릭대학교 | 4,515 |
| 7 | 수원대학교 | 7,725 | 7 | 명신대학교 | 4,706 |
| 8 | 고려대학교 | 7,687 | 8 | 영남신학대학교 | 4,802 |
| 9 | 숙명여자대학교 | 7,653 | 9 | 대구외국어대학교 | 4,919 |
| 10 | 상명대학교 | 7,651 | 10 | 포항공과대학교 | 4,970 |
| 11 | 홍익대학교 | 7,648 | 11 | 진주국제대학교 | 4,992 |
| 12 | 한양대학교 | 7,633 | 12 | 부산장신대학교 | 5,027 |
| 13 | **연세대학교** | **7,630** | 13 | 감리교신학대학교 | 5,047 |
| 14 | 백석대학교 | 7,621 | 14 | 침례신학대학교 | 5,066 |
| 15 | 호서대학교 | 7,619 | 15 | 호남신학대학교 | 5,127 |
| 16 | 한세대학교 | 7,592 | 16 | 대전가톨릭대학교 | 5,220 |
| 17 | 명지대학교 | 7,528 | 17 | 신경대학교 | 5,340 |
| 18 | 경원대학교 | 7,517 | 18 | 한일장신대학교 | 5,442 |
| 19 | 한서대학교 | 7,515 | 19 | 칼빈대학교 | 5,493 |
| 20 | 포천중문의과대학교 | 7,485 | 20 | 부산외국어대학교 | 5,586 |

2007년 9월 19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국감자료

위 표에서 연세대학교는 연간 등록금 상위 13위를 기록하였다. 연세대학교의 순위는 13위보다 더 높게 랭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단과대가 모여 있는 종합대학이라는 점 때문에 등록금의 평균을 낼 수밖에 없었고, 이 점은 13위보다 더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는 예술대학교와 의과대학교 보다 낮은 수치로 랭크되도록 하였다.

**국립대학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재단이 교육부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막중하다.** 재단전입금 제도는 학교법인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이러한 수익사업의 과실을 교육을 위한 투자로 활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재단전입금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 4. 낮은 정부 국고 보조금

등록금 문제가 해마다 발생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학교 측의 재정적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즉, 사립대학의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 문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 부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은 높은 등록금 인상률을 낳았고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학업이 아닌 생계에 뛰어들고 있으며, 학업 대출금으로 인한 채무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 주소이다. 현재 사립대학교의 평균 등록금 의존율은 70%가 넘는다.

정부의 낮은 국고 보조금으로 학교는 재정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에 많은 의존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한국의 고등교육이 질적 측면에서 국제수준과 격차가 발생케 했다. 2006년 IMD 발표에 따르면 한국 고등교육의 경제적 요구에 대한 부응도는 조사대상 61개국 중 50위로 하위권이다.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재정투자다. 교육재정이 부족하다 말하지만, 지표상 교육재정은 그리 부족하지 않다. 민간재원을 합한 GDP대비 교육재정 부담비율은 7.5%로서 OECD 평균(5.9%)보다 높다. 그럼에도 왜 늘 부족한 것일까? 이는 인건비 및 시설비 부담이 크고, 민간부담이 많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있어 별도 재원이 없다는 데 큰 원인이 있다.

특히 대학재정 부족은 심각하다. 전체 교육예산중 고등교육 예산이

표1)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고등교육비 비율 및 분담비율 (2003, %)

| 구분 | GDP대비 고등교육비 비율 | | | 고등교육비 분담비율 | |
|---|---|---|---|---|---|
| | 공부담 | 사부담 | 계 | 공부담 | 사부담 |
| ▪한국 | 0.6 | 2.0 | 2.6 | 23 | 77 |
| ▪프랑스 | 1.1 | 0.2 | 1.4 | 81 | 19 |
| ▪독일 | 1.0 | 0.1 | 1.1 | 87 | 13 |
| ▪일본 | 0.5 | 0.8 | 1.3 | 40 | 60 |
| ▪영국 | 0.8 | 0.3 | 1.1 | 70 | 30 |
| ▪캐나다 | 1.3 | 1.0 | 2.4 | 56 | 44 |
| ▪미국 | 1.2 | 1.6 | 2.9 | 43 | 57 |
| ▪OECD 국가평균 | 1.1 | 0.4 | 1.4 | 76 | 24 |

자료: OECD(2006) Education at a glance

표2) 학생 1인당 교육비 (단위: US달러 PPP, %)

| 국가 | 학생 1인당 교육비 | | | |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
|---|---|---|---|---|---|
| | 고등교육 | | 중등교육 | | |
| | 금액 | OECD평균비 | 금액 | OECD평균비 | |
| ▪한국 | 7,089 | 63.0 | 6,410 | 92.1 | 37% |
| ▪일본 | 11,556 | 102.7 | 7,283 | 104.6 | 41% |
| ▪영국 | 11,866 | 105.4 | 7,290 | 104.7 | 40% |
| ▪미국 | 24,074 | 213.9 | 9,590 | 137.7 | 64% |
| ▪OECD 국가평균 | 11,254 | 100.0 | 6,962 | 100.0 | 43% |

출처: OECD(2006) Education at a glance

12.5%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의 24%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전체 학생대비 20%를 초과하는 고등교육 학생 수 비중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 최근 대학재정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아직 낮은 수준이다. 200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고등교육비 공부담 투자비율은 0.6%로 OECD 평균인 1.1%에 크게 못 미친다. 또 한국의 고등교육비 공공부담비율은 23%로서 OECD 국가 평균(76%)의 1/3도 안 된다.

민간부담 교육비의 과중은 그동안 한국의 고등교육이 수혜자 부담원칙에 크게 의존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대학의 86%(학생 수 기준 75%)를 차지하는 한국 사립대학의 재원 중 등록금 비중은 70%에 달하며, 국공립대학 조차 40%를 넘어선다. 이처럼 사부담 재정 비율이 높음에도 학생당 공교육비는 매우 낮다.

대학재정의 부족은 결국 고등교육 여건의 상대적 낙후를 가져온다. 대학교육 여건의 대표적 지수인 교수 당 학생 수를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37.8명으로서 OECD 평균 14.9명에 크게 못 미친다. 부족한 재정은 대학교육여건의 낙후를 가져오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임을 고려할 때 획기적 재정투자 확대방안이 요구된다.

국내 사립 대학교 재정에서 국고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4.0%에서 2006년 1.5%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0.2%에서 76.9%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매우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등록금, 재단 전입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 연세대학교에서도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률은 매우 높았고, 학교 측 교직원의 임금도 동결되는 등 고통분담을 함께 했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대학을 위한 지원에는 인색하다. 그러나 대학의 발전은 지역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며, 사회발전을 위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움을 얻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회는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 5. 결론

우리는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채무자로 전락하고, 많은 학생들이 전공공부가 아닌, 아르바이트나 과외를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현재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목격하고 있다. 또한 학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고지되는 등록금으로 당혹스럽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더 힘껏 목소리 내야 할 것이다. 재정의 많은 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기대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것을, 꽁꽁 묶여있는 재단적립금을 학생들에게 환원할 것을, 등록금 책정 과정에 민주성을 확보할 것을 말이다. 등록금 문제는 한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더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는 바로 당신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Ⅱ 수학배치고사와 영어진단평가

### 이름뿐인 수준별 수업,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08학번 신입생이 입학도 하기 전 배치고사를 치르게 하여 무한 경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 서열화를 통한 경쟁으로 질 높은 교육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사고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대학을 오로지 취업을 위한 장으로, 치열한 경쟁의 전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 커리큘럼의 다양화는 환영합니다.
### 하지만...

수준별 분반 수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일률적인, 학점 따기 식의 수업을 벗어나서 자신의 수준에 알맞은, 좀 더 학생들에게 필요한, 좀 더 즐거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학생의 입장에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어와 수학의 수준별 수업은 진정한 의미의 수준별 수업도 아니며, 제대로 된 분반배정도 아닙니다. 성적평가 방식의 차등화로 교육에 대한 부담을 학생 개개인에게 넘김으로써 비용을 전가하고 취업과 학점 경쟁 속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학교는 신입생들이 시험을 보기도 전에 고급대학영어, 대학영어, 기초대학영어의 분반 수를 임의로 정해놓았습니다. 08학번 신입생들의 진단평가 성적에 따라 반을 개설하고,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미 학생들의 분반 수는 제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개설되어 있는

분반 수에 맞춰 학생들을 끼워 맞추었던, 그저 한 줄 세우기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개설된 영어분반의 경우 시험을 보기도 전에 임의로 상/중/하 비율을 나눠놓기 때문에 단과대별 분반 개설 비율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단과대별 분반 컷트라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험지로 같은 날 시험을 본 신입생들은 설사 같은 점수일지라도 어느 단과대에 소속이냐에 따라 고급대학영어반이 될 수도 있고, 대학영어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방식도 각 분반에 따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나뉘어, 비슷한 실력의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단과대나 분반별로 학점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학생들에게 학점경쟁을 강제하는 조건으로만 작용할 뿐입니다.

## 계절학기의 강제이수

이과대, 공과대, 생명시스템대학 신입생의 경우엔 영어과목 외에도 수학시험을 보았습니다. 일정점수를 넘지 못할 경우 1학기에 필수로 들어야하는 미적분학과 벡터해석(1) 또는 공학수학(1) [이하 미적(1)] 대신에 핵심미적분학을 필수로 수강해야합니다. 수강신청일에 이미 핵심미적분학이 들어 있습니다. 기초지식이 계속 쓰이는 이공계의 경우 수준별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강제로 핵심미적분학에 배정된 경우 전공이수조건[1]인 미적(1) 을 듣지 못하게 되며, 이는 곧 2학기를 마치고 전공신청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2학기를 마치고 전공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엔 부득이하게 여름학기로 미적(1)을 수강해야 합니다. 수준별 미적 수업의 댓가는 정규학기를 다니고도 타의에 의해 2학기를 넘서거야 전공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2학기를 이수한 후 전공 신청을 받으려면 30만원이 넘는 계절학기 등록금을 내며 계절수업을 들어야하는 것입니다.

1) 이과대 신입생 전공이수조건 : 글쓰기, 대학영어 I, II, 기독교의 이해, 미적분학과 벡터해석(1),(2), 일반물리학/화학/생물학 및 실험(1) 중 2과목, 일반물리학/화학/생물학 및 실험(2) 중 2과목, 전공탐색, 명저읽기





학교본부가 학생들과 한번만이라도 상의하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말 학생을 위한 수업을 하려고 하였다면 지금의 문제점들은 당연히 고려되었어야 했던 것이며 학교와 학생들이 함께 보완책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과 현실에 대해 묻지도, 듣지도 않았으며 무리하게 학사제도를 변경해서 그로 인한 고통을 08학번 신입생들에게 고스란히 떠안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대화하려는 학생들의 시도에 기만적인 태도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교육권이 학교의 행정편의를 위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교육의 객체로만 취급당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할 때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이 시기만 지나면 될 것이라고, 나 혼자 잘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저 넘겨왔던 것이 너무나 많고,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교육권과 자치권, 그리고 삶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권에 바로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고민하고 요구하여 스스로의 삶을 재구성하는 행동들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 Ⅲ. 자치공간 문제

08학번 새내기 친구들이 입학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08학번 새내기들도 과/반방이나 동아리방, 혹은 학회방 등에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교실이 곧 생활공간이었던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 온 새내기들로서는 수업과 별개로 '자치'공간이 있다는 것은 신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자치공간

최근에, 학내 몇 개 단과대에서 자치공간들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회대의 경우, 몇몇 과/반 방이 맞닿아있는 강의실들과 함께 없어지는 공사가 예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공사가 무기한 보류 된 상태입니다. 공대에서도, 제1공학관 강의동 증축을 위해서, 기존의 낡은 강의동에 있는 10여개의 자치공간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업만이 새로 증축된 6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낡은 강의동은 공사가 시작되면 허물어지는 건물임을 생각했을 때, 공학인들의 자치공간은 언제 없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치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매우 큰 위기입니다. 과/반방, 동아리방, 학회방 등은 학생자치의 기본이 되는 장소이고, 생활의 공동체로서의 생활의 공간이며, 새로운 대학문화 창조의 공간이고, 전공이나 사회문제에 관한 열띤 토론의 장이기도 합니다.학생자치공간이 갖는 긍정적 기능은 차치하더라도, 학교의 엄연한 주체 중의 하나인 '학생' 들이 건물 내에 자치공간 조차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의 하나의 주체라는 것은 물론이고 자치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소중한 자치공간은 '태초에 빛이 있었던'것처럼 원래부터 있었던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요구해서 얻어낸 공간입니다. 몇몇 단과대는 최근까지 자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소리를 강하게 냄으로서, 자치공간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학우들 사이에서의 폭넓은 공감을 통해 힘을 모아 얻어낸 것입니다. 공간의 주체도 우리이고, 공간을 얻어낸 주체도 우리인 것입니다.

자치공간을 학생들에게서 앗아가려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치공간을 얻어낸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중한 공간인 자치공간을 스스로 아끼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치공간 안에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Ⅳ. 로스쿨

로스쿨은 누구의 로스쿨입니까?
-로스쿨에 관한 여러 오해들

## 들어가며.

로스쿨 때문에 한동안 대학가는 시끄러웠습니다. 로스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로스쿨 그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인가를 받으려는 대학들의 문제로, 사법고시가 없어지는 법학과 학생들만의 문제로만 비춰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로스쿨은 그들만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로스쿨을 인가받기 위해 학교에서는 현직 판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의 교수들을 모셔오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봉은 보통 교수 연봉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 스카우트 비용과 연봉은 모두 지금 일반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새로 짓는 많은 건물들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이렇게 학생들의 등록금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필요한 것일까요? 로스쿨에 관한 부푼 상상들, 오해들을 풀어내고 그 허구적인 껍질들을 벗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 첫 번째 오해.
## 사법개혁을 위해 로스쿨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로스쿨의 필요성을 이야기 할 때 가장 큰 이유로 드는 것이 바로 학벌에 따른 사법비리,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학의 학벌로 나뉘어 법조인을 판단하고 줄을 세우고, 연수원제도 내에서 전관예우의 문화가 존재하

는 등, 지금의 사법고시 제도 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사법개혁을 단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스쿨은 절대 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들이 로스쿨 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말 그대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하고, 실무교육을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로스쿨의 수를 제한하여 학교 선발 후 인가하고, 로스쿨 총 정원을 제한하는 등, 흘러가는 행태를 보자면 로스쿨이라는 이름으로만 바꾸어서 권력층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로스쿨의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학교 수를, 그리고 총 정원수를 제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하고 싶다면, 각 학교의 자율에 맡겨 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로스쿨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로스쿨법대로 시행이 된다면, 로스쿨을 인가받은 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벌이 생겨나게 될 뿐입니다. 사법고시에서 로스쿨로 사법 비리의 온상이 이전된다는 것밖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사법개혁은 단지 오래된 껍데기를 버리고 내용물은 그대로인 채 새 허물만 씌워보자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 두 번째 오해.
## 많은 이들에게 법조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로스쿨은 필요하다?

법학과라는 과에 상관없이, 전공에 상관없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그에 걸맞은 실무 법을 배우기 위한 공간이 바로 로스쿨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법에 관해 접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로스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로스쿨은 정말 모두에게 열려있는 곳입니까? 2000명 정원이라는 것만 보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떠나서라도 지금의 대학은 치솟는 등록금을 8학기 겨우겨우 내어 빚을 진 채 사회에 나와도 88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우리, 88만원 세대의 공간입니다. 청년 실업이 200만을 육박하고, 취업해도 학자금 대출 갚으랴, 자신의 살 길 마련하느라 바쁜 이 시대에 로스쿨이라는 졸업하는 데 1억 원이 들어도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을지 말지도 모르는 곳에 갈 수 있을까요?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예비시험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을까요? 로스쿨은 모든 것이 돈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구조입니다. 한 학기에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등록금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 것이며,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다니는 학원과 시험 준비는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로스쿨이 생기고 나면, 이젠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은 법조인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세 번째 오해.
## 로스쿨도입으로 더 쉽게, 좀 더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의 폐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지역 방방곡곡에서 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사무소가 없는 지역이 대다수이며, 이렇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 수에 비해 변호사 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법률서비스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이 지방으로 여러 곳곳으로 나뉘어 생긴다고 해도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변호사사무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방의 로스쿨을 수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지역으로 올라오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며, 지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주변에 변호사사무소가 몰리는 것은 똑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법고시 1000명에서 로스쿨 2000명으로 단지 수만 늘린다고 해서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로스쿨을 수료하는 데는 3년간 1억 원이 듭니다. 3년간 피땀 흘려 공부하여 사회에 나와 있을 때, 이미 자신은 1억의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액의 대학원을 수료하고 나왔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당 변호사 수를 계속해서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비교수치입니다. 미국은 민사소송의 홍수가 일어나 변호사가 이래저래 많이 필요한 나라이기에, 민사소송이 범람하지 않는 한국에서 지금의 국민당 변호사수가 미국에 비해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민사소송이 범람하는 것을 꼭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법률서비스가 비싼 것은 단지 법조인의 수가 적어서가 아닌, 법조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쓰인 비용이 너무나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철저한 분석이 없이 단순히 수만을 늘리고, 오히려 비용은 두 배 이상으로 더 늘렸을 때 과연 더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번째 오해.
## 로스쿨은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이니 법학과(이든)가 아닌 나는 상관없다?

로스쿨로 미소를 짓는 건, 바로 로스쿨을 인가받는 대학들이 될 것입니다. 일반 법학과로서 서열이 조금 앞서 있는 것과, 로스쿨이 있고 없고의 대학 서열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학교서열의 재편화의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것과 일반 대학의 학부 교수로 있는 것과도 교수 지위에 있어서도 크나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명목으로 비싼 등록금을 매겨 남는 이윤도 많으니,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몇몇 로스쿨 예비인가대학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일명 미니 로스쿨 (정원 50명 내외의 로스쿨)이라 불리는 대학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유는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발에 정부는 로스쿨 등록금에 대한 제재를 어느 정도 풀어주었고, 그 반발은 바로 수그러들었습니다. 지금의 학교들은 로스쿨이 사법개혁, 법률서비스 질의 향상이나 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닌, 바로 학교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그만큼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을 인가받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들은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을 인가받는데 있어서 필요한 건물들과 교수님들을 모셔오는데 엄청난 액수의 등록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지어져도 교수님들이 새로 많이 오셔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치공간, 필요한 수업들은 전혀 새로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학부가 없어짐에 따라 재수강은 할 수 있을까, 수업은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의 걱정뿐입니다. 우리가 내는 등록금은 당연히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등록금이 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로스쿨에 쓰여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무중심의 로스쿨은 미국의 법체계와 다른 한국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 예가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일본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로스쿨을 이토록 무리하게 정치적 야합으로까지 실시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사법개혁, 법률서비스 질의 향상 등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것도





다 들통이 났습니다. 여기에 반발이 일어나는 것이 무서워 학교에는 로스쿨등록금 제재를 풀어주고, 학부생들에게는 사법고시를 2016년까지 늘려주려는 계획으로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무마시키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사법고시가 없어지고 법학부가 폐지됨에 따라 그에 피해를 입는 학생들을 위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존재하는 로스쿨법 그 자체로서 문제점이 너무나 많은 법인 것입니다. 그 문제 많은 법에 장사가 잘된다는 이유로 환영하는 학교, 그것을 인가받기 위해 많은 우리 학생들의 등록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법대생이어서, 법대생이 아니어서, 나는 학생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로스쿨법이라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법 하나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이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로스쿨 법에 대한 전범위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 Ⅴ. 여학생교육권

## '학교'에 다니고 싶다

"등록금이 비싸서 어디 학교 다니겠냐?" 라는 말은 이미 "오늘 아침을 못 먹었더니 힘이 없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일상적인 푸념이 되었다. 매년 엄청난 퍼센트로 뛰어오르는 등록금은 학교를 다니고 싶다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 되었고, 자유로울 것만 같았던 대학 수업은 이미 그 수업을 고르는 과정에서부터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상대평가의 압박 속에 내 학습은 '난 이것이 알고 싶다.'라는 말보다는 '재 보다 더 잘해야 한다.' 라는 말에 더 탄력 받는다. 중도 앞 민주광장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공부에 방해되는 소음이 되었고, 이내 그 목소리는 대기업 취업 설명회 홍보에 다시 묻혀버린다. 심지어 어느 날 과방에 갔더니 과방이 없어질지도 모른댄다. 이 와중에 어떤 교수는 강의 중에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으며 히히덕댐을 유도하고, 생리통이 심해 결석계를 내면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니, 여긴 도대체 어딜까?

## 연세재벌, 가부장[2] 연세

교육권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보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교육권이 단순히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배려 차원으로 이야기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학내외에서 너무나도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학교 재단의 권력은 교육권을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학교 재단이 가지는 가부장적권력, 자본력, 그리고 보수적인 사회의 흐름에 부합함으로써 생기는 그들의 헤게모니는 학생과 학교사이의 권력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치밀하고 공공연하게 학생들의 교육권을 빼앗아 가고 있다.

이러한 학교 재단의 본질은 언제나 사회의 발전이데올로기에 부합하고, 사회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가부장적 권력을 획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의 교육방침에 가려져 은폐되어온 것이다. 글로벌라운지를 만든다는 핑계로 학생들의 자치공간을 위협하고, 학생들을 끊임없이 오로지 영어공부와 취업준비로 밀어 넣는 학교의 교육방침은 전형적인 가부장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학교의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운영방식 덕택에 학생들은 무한경쟁에 허덕이고 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한정된 선택지 안에서 고시와 취업을 두고 갈등하며, 영어와 일본어 사이에서 방황한다. 맘 놓고 소설책 한권 보는 것이 부담스러운 빡빡한 학사 일정과 평가방식 때문에 숨 돌릴 틈 없는 학생들에게, 교육권은 도대체 찾아볼 수 없다.

## 여학생 교육권을 이야기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끊임없이 교육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해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역시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권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여학생 교육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생리결석계와 여학생 휴게실의 증축을 요구하고, 강의실 교수 성폭력을 폭로하고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2) 가부장이란 가정(혹은 사회)에서의 대장인 아버지(남성)을 말한다. 즉 가부장적이라고 할 때에는 아버지 남성들만의 언어로 성차별을 공고히 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짜여진 현재의 사회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을 뜻한다. 즉 사회의 주체는 아버지 남성이며, 그렇지 못한 주체들은 타자화 되고, 주변화 된다. 연세대학교와 연세재단 역시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남성중심사회의 가부장이며, 그것을 토대로 아버지 남성으로써의 권력을 획득하고 있다.





남학생 교육권에 대한 대립항으로써의 여학생 교육권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도 쉽게 여학생 교육권을 남학생 교육권에 대한 침해나, 여학생들만을 위한 권리로 해석해버리는 것은 학내가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치공간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장애인 이동로는 확보되어있지 못하며, 강의평가제도를 얻어냈지만, 교수의 성폭력적인 발언을 평가에 반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가부장적인 학교 재단에 의해 획일적으로 구성된 학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여성주의적으로 사고된 교육권을 이야기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여학생 교육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여학생처 폐지와 성폭력 상담실의 위기

학교 재단은 올해 초 행정개편을 빌미로 여학생처를 통합 폐지하고 성폭력 상담실을 리더십 개발원 아래 있는 상담센터의 부속기구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2월 이사회가 결렬되고, 행정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러한 움직임 자체는 이미 학교 재단이 얼마나 가부장적으로 사고하고 있으며, 어떻게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학내에서 성폭력에 반대하는 것은 학생들의, 특히 만연한 가부장제의 성차별 논리에 의해 억압받는 여학생들의 교육권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학생처는 여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을 도맡아 해오고 있었으며, 성폭력 상담실에서는 성폭력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건을 접수받고, 처리하는 과정, 가해자를 징계하는 것, 피해자의 치유와 생존을 고민해야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심지어 2004년도 교육투쟁에서 성폭력상담실의 독립을 학교 측에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이후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성폭력 상담실의 확장 이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본부는 마음대로 이것을 뒤집어 버렸다. 이처럼 학교 재단이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여학생처와 성폭력상담실을 유명무실화 하려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 성차별, 성폭력, 성희롱적 발언은 더 이상 강의실에 출몰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의 이러한 태도는 강의실에서 성차별, 성폭력 성희롱적 발언이 빈번하고,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등 사회적 약자들을 타자화하는 발언이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나오고 있는 현 학내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더욱 문제시된다. 교육권을 박탈당한 학생들은 권위적인 일부 교수들의 성폭력적 발언들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

## Ⅱ. 연세대학교 교육현안 분석

으며,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 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 재단은 성별권력적이고 권위적인 교수-학생간의 관계를 성찰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오히려 가해자 교수를 옹호하는 등의 태도를 통해 계속해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강의평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강의평가만으로는 교수들의 성폭력적 발언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그저 '양성평등한 수업이었는가?'에 YES or NO 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강의평가로 학내에 만연한 성차별적 발언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강의실 교수 언어 성폭력에 대한 일말의 성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 계절학기 중 생리결석계 사용을 보장하라!

이토록 가부장적이고, 학생들을 무시하는 방식의 '경영'을 고집해오는 학교 재단의 권위주의적 처사와 학내 분위기 속에서도 생리결석계를 시범 운영 끝에 공식 제도화 하는 등의 여학생 교육권을 되찾는 시도는 계속되어왔다. 하지만 언제나, 학교 재단은 문제의식에 대한 아무런 공감과 성찰없이 '눈가리고 야옹'하는 식의 처리만을 일관해 왔다. 생리결석계는 단순히 여학생들이 생물학적인 특성을 빌미로 수업을 빠지겠다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학내의 남성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직접적으로 몸에 대한 억압과 부정을 경험하는 많은 여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획일적인 학내 문화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학교 재단은 이에 대한 정확한 고민 없이 생리결석계를 시행했고, 결국 계절학기, 대학원 수업 등에서는 아직까지도 생리결석계가 공식화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학교 재단이 결국 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렇게 원하니 해주겠다'는 식의 불량한 태도일 뿐이다.

## 화장실을 통해 바라보는 일상의 정치

이 뿐만이 아니다. 학교 재단은 언제나 가부장적인 그들의 논리와 교육을 상품화 하는 자본주의적 시도로 일관해왔고,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시도에 재동을 걸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그리고 이제껏 학생으로 인식되어 오지 않았던 학내 타자들의 교육권을 되찾아야 한다. 화장실의 정치는 이제껏 이야기 되어오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일상적인 교육권을 침해해온 것들을 가시화 하고, 문제제기 하는 것이다. 성별 이분법에 의해 그리고 비장애인의 정상성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학내의 모든 화장실은 장애인, 성소수자와 같은 소수자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 화장실 하나 편하게 가지 못하는 학내 공간에서 그들에게 학교가 이야기하는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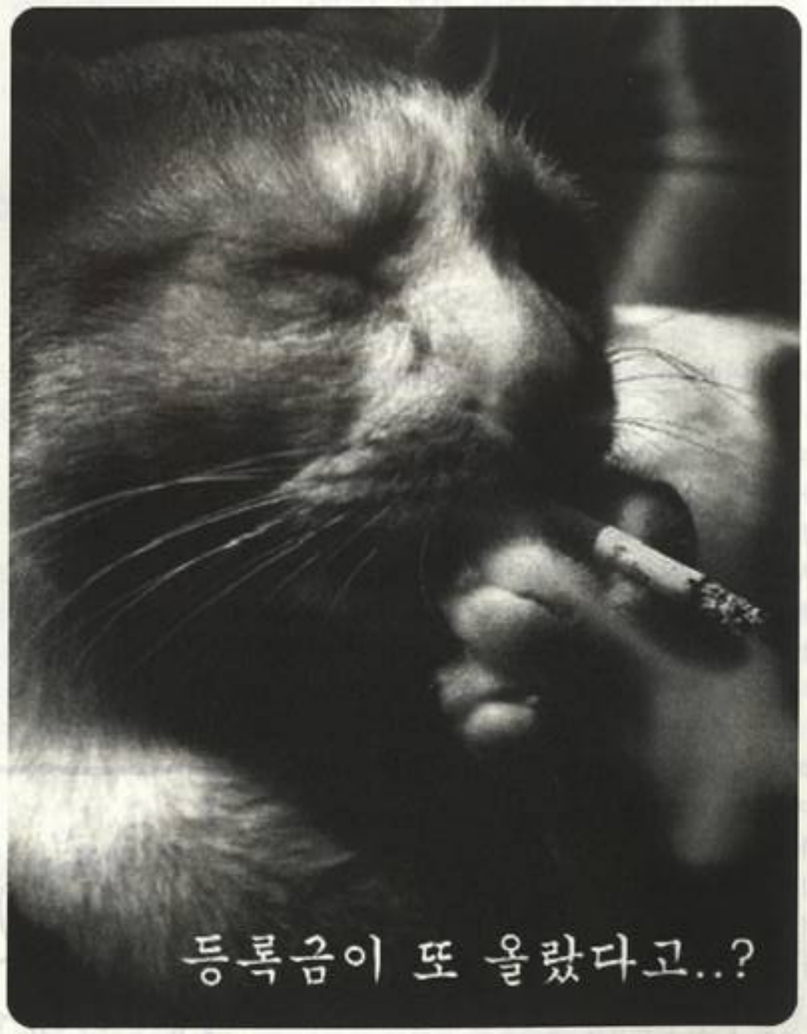




리더 인재 양성과 그것을 위한 교육 방침은 그저 사치일 뿐이다. 학교가 마음대로 그어버린 학생의 기준, 그리고 학내 구성원들의 교육권이 어떻게 그 기준 밖에 있는 학생들을 타자화하고 있는지 폭로하며, 학내의 구성원들은 하나로 통일될 수 없으며,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성찰할 때에만, 진정한 학생 교육권이 보장 될 수 있음을 화장실의 정치를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한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공간, 하지만 누군가는 그 일상조차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 지금의 학내 공간이다.

## 일상의 전복

모든 변화는 일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교육권을 그리고 여학생 교육권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 이 순간 학내의 일상은 이 사회가, 그리고 그것에 편승하는 학교 재단이 심어놓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적 경쟁이 만연할 뿐이다. 학교가 지금 당장 교육 투쟁 요구안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몇몇 제도가 그저 행정적으로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완전히 되찾을 수는 없다. 물론 그러한 시도들이 하나 둘씩 모여 큰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으로부터의 변화이며, 일상에서 발현되는 학교 재단의 가부장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시도들을 깨내는 것이다. 일상을 뒤집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내의 일상적인 차별논리와 가부장성은 일상적인 만큼 은폐되어 있으며,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것에 편승함으로써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하고 싶어 하는 학교 재단은 그러한 일상이 뒤집히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러한 일상에 문제제기 하고, 그것을 전복하여 다양한 모든 학생이 주체가 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야 한다.




등록금 지 못 미 ㅠ_ㅠ



2008년 연세의 교육을 말하다

IV

# 328
# 교육공동행동

## 3월 28일 우리의 소망을 정부에 전달합니다.

### 연간 등록금 천만원 시대. 학교 다닐만 하십니까?

등록금이 오르고 올라 어느새 연간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음대, 의치대는 이미 1200만원을 육박하고 있고 공대 또한 입학금을 포함하여 1000만원을 이미 넘어선 시점입니다.

### 끝없이 치솟는 등록금, 내년이면 두 배?

지난 3년간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평균 두 자릿수입니다. 내년에 등록금이 10%가 인상된다면 등록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연세 등록금, 얼마나 올랐을까?>

| 계 열 | 2003년도 -전년대비 6.5%인상 | 2006년도 -전년대비 12%인상 | 2008년도 -전년대비 8.9%인상 | 2009년도 -10%인상 경우 |
|---|---|---|---|---|
| 인문,사회 신학 | 2,391,000 | 3,014,000 | 3,606,700 | 3,967,370 |
| | | | 3,724,700(문헌,심리) | 4,097,170 |
| 상경 | 2,411,000 | 3,037,000 | 3,633,700 | 3,997,070 |
| 이과대,간호대 | 2,778,000 | 3,503,000 | 4,185,700 | 4,604,270 |
| 공학 | 3,150,000 | 3,972,000 | 4,740,700 | 5,214,770 |
| 음악 | 3,530,000 | 4,450,000 | 5,305,700 | 5,836,270 |
| 의,치예 | 3,330,000 | 4,198,000 | 5,007,700 | 5,508,470 |
| UIC | - | | 7,140,700 | 7,854,7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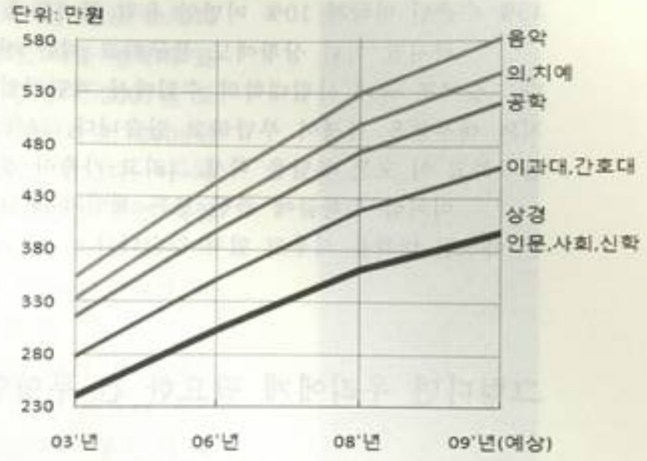
*의/치 본과 및 생활/교육/체육의 등록금은 빠져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단과대는 5년 사이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등록금이 오른다면 2009년에는 대부분 단과대가 연간 등록금 천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이렇게 등록금이 폭등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 2만명 중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약 3000명. 최소 졸업 요건인 8학기를 대출 받으면 대학생은 4000만원의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금.**
**그렇다면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 1. 턱 없이 낮은 고등교육 재정

현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약 4%이며 이 중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10%안팎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GDP 대비 0.4%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이 GDP 대비 1.1%나 되는 점을 본다면 이는 턱 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육재정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체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은 교육재정 속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방향으로 생각하면 초중교육의 재정을 줄이자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GDP 대비 교육 재정 선진국 수준인 7%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만큼 끌어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 정부가 대선 때 약속했던 6% 확보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 2. 등록금 의존율

여기서 말하는 등록금 의존율이란 대학 재정 중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의 비중을 말합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80%에 이릅니다.

40% 수준인 미국과 10% 미만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몇 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단 전입금[1]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국내 사립대학의 수입에서 재단전입금의 비중은 9% 안팎으로 그 나머지의 대부분을 학생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엄연히 사회적 공공성을 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담을 학생 그리고 가족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등록금에 관한 모든 책임과 부담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정부와 학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상교육 !

대학 교육은 사회적 공공성을 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아직 실행하기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문제가 되는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1.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후불제란 등록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정부에서 대신 납부해 주고 학생들은 졸업 후 세금으로 정부에 내는 제도입니다. 등록금 후불제의 핵심은 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등록금 후불제는 이자율이 높은 학자금 대출과는 달리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이 없는 제도이지요.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 네덜란드에서는 이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후불제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부담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 계층의 학생들이 부담 없이 대학을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등록금이 비싸 입학을 포기해야했던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기에 모두에게 유리한 셈이지요.

### 2. 등록금 상한제

1) **재단전입금이란** 재단 회계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 예를 들어 연세재단에서 연세대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록금 상한제란 도시 근로자 연 평균 소득의 1/12로 등록금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정확히 표현하면, '등록금액 책정 상한제'라고 합니다. 2007년 도시 근로자 연 평균 소득의 1/12로 계산하면, 2008년 등록금은 한 학기에 약 15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등록금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80%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한 후 대학을 가는 현실에 등록금 때문에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등록금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지만 현재 학생들의 현실에 가장 필요한 제도는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교육재정의 확보와 함께 후불제와 상한제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 등록금 결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솟는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것은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대학 합격과 동시에 등록금 마련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국민 모두의 고통입니다. 그렇기에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족한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인 등록금넷에서는 3월 28일 범국민교육행동을 주최합니다. 전국 수많은 대학의 학생들과 사회 곳곳의 다양한 단체들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아 더 큰 세상을 향해 우리의 희망을 외칠 때입니다.

3월 28일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 등록금넷과 함께 우리는 다섯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나. 교육재정을 현재 4%대에서 GDP 대비 7%로 확대하라. 재단은 재단 전입금을 확충하라**

둘째.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전면 확대하라.
셋. 등록금액 책정 상한제, 등록금액 차등 책정제, 등록금 증액 상한제를 실시하라.
넷.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라.
다섯.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 제도를 운영하라.

## 교육은 결코 상품이 아닙니다.

인상과 할인을 줄다리기하는 시장의 논리로 교육을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로서의 교육을 위해 연세인의 여러분의 소망을 함께 나눕시다.

[3월 28일 공동행동 참가문의]
연세대 참가단 실무단장 한진택
(010-5109-0964)





제 작 일

2008년 3월 21일

글 기고

45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연세 36.5'
38대 법과대학 학생회 'Real Fanta'
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
45대 이과대학 학생회 'E-world'
45대 공과대학 학생회 'Dream Engineer'
연세대학교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노수석 생활도서관

편 집

45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연세 36.5'

끝맺음